

9/17/23

설교 제목: 하나님을 본받는 삶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에베소서 5 장 1-14 절

- (엡 5:1)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 (엡 5: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 (엡 5:3)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 (엡 5:4)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 (엡 5:5)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 (엡 5:6)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 (엡 5:7)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 (엡 5: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 (엡 5: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 (엡 5:10)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 (엡 5:11)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 (엡 5:12)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절관주** 롬 1:24-27
- (엡 5: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 (엡 5:14)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쓴 책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곳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성도 자신과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한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책 전반부 (1-3 장)에서 교회와 교회의 특권에 대해 교리적인 측면에서 먼저 설명한 후 후반부 (4-6 장)에서 교회된 성도들이 이땅에서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을 실천적인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문 (4장 25-32 절)에서 성도는 자신이 만든 자아인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데까지 이어져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엡 5:1)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엡 5: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사랑과 희생의 제물로 바친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인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 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언급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엡 5:3)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헬라어 ‘포르네이아’는 합법적인 결혼 생활 외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더러운 것’ 헬라어 ‘아카다르시아’는 윤리적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추한 행위들을 가리키지만 특별히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탐욕’ 헬라어 ‘플레오넥시아’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가 도시 성격상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여서 많은 이들이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같은 것들은 생각하지도 말고 살라고 합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행해졌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행위들을 철저히 금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엡 5:4)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 헬라어 ‘유트라펠리아’는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울 정도의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뜻합니다.

‘어리석은 말’ 헬라어 ‘모롤로기아’는 최악의 성향을 띤 분별없이 지껄이는 말을 뜻합니다.

‘희롱의 말’ 헬라어 ‘유트라펠리아’는 상스러운 농담이나 독설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같은 언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말’ 헬라어 ‘유카리스티아’는 ‘은혜스러운 말’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언어입니다.

삶이 변화되었는데 언어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항상 흘러넘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3 절에서 언급한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 탐하는 사람을 다시 언급하며 이들을 가리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엡 5:5)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 탐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으며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이 세상 무엇이든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 곧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동일한 말을 반복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미혹하는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간지 말고 가르침을 받은대로 진리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합니다.

(엡 5:6)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엡 5:7)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헛된 말로 속이는 자'는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추악한 죄에 빠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자들과 연합해서는 안됩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존재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 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불순종의 아들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들의 헛된 말에 속아 그 죄악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방법 중 성도가 금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언급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성도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들을 언급합니다.

성도는 바르지 않은 것을 금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바른 것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로 살라고 합니다.

(엡 5: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도는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밖에 없었던 마귀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의 빛으로 살아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어둠 속에' 있었다고 하지 않고, '어둠'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빛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빛은 빛인데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빛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열매로 증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언급합니다.

(엡 5: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착함' 헬라어 '아가도 쉬네'는 관대하고 온유하며 도덕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의로움' 헬라어 '디카이오쉬네'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의미합니다.

'진실함' 헬라어 '알레데이아'는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하여 표리부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엡 5:10)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두움에 속한 자들과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라고 합니다.

(엡 5:11)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엡 5:12)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두움에 속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3-5 절에서 이미 서술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방탕하며 탐욕이 가득차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은밀히 행하는'이라는 말 속에 그들의 행위가 심히 수치스럽고 혐오스럽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으로 영원한 빛이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라고 합니다.

(엡 5: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출 때 어두움에 속한 자들과 어두움 행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깨어 일어나라고 합니다.

(엡 5:14)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 '죽은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 즉 어두움에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깨어서' 헬라어 '에게이레'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롭게 태어난 상태를 말하며 '일어나라'와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취시리라'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어두움에서 빛으로의 변화가 인간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이었던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에 빛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빛을 갹으며 사는 길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깨어서 일어나십시오!